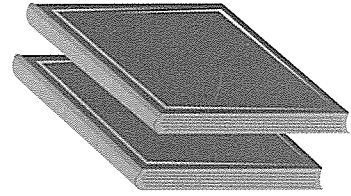


# 책과의 만남



## 바람과 물과 태양이 주는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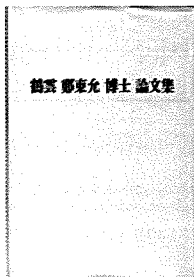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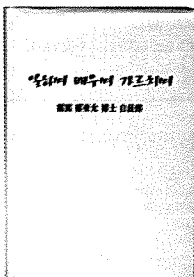
우리가 자연 에너지를 어떤 방법으로 얻고 활용하는지를 알려 주는 책. 태양에너지, 바람 에너지, 수력 발전, 조력 발전, 파력 발전, 퇴비에서 얻는 에너지, 바이오 가스 설비, 바이오 디젤 등을 실제 설비 개대로 정확히 그린 자세한

도판, 쉽게 풀어쓴 짧은 글과 함께 소개했다.

이를 통해 자연 에너지가 얻어지는 과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석유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아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또한 '바람과 물과 태양이 주는 에너지'는 우리가 자연 에너지를 어떻게 얻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이면서도 쉽게 안내하는 과학 지식 그림책이다.

## 일하며 배우며 가르치며



본 협회 정동윤 전회장의 자서전 '일하며 배우며 가르치며'가 출간됐다.

저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에서 느끼고, 경험하며 생각했던

순간 순간들이 인생살이 이야기로서 과욕없이 허구도 벗어버리고 진솔하게만 정리된다면 이것도 후배들과 자손들에게 하나의 귀감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겸손함을 표현했다.

또한 자서전을 통해 지난 날 뒀던 길을 바쁘게 뛰어오면서 깨닫지 못한 일들이 정리된다면 바람직 할 것이라며 솔직한 마음을 담았다. 아울러 자신이 쓴 논문집도 함께 발행했다.

## 열정, 순수 그리고 사람냄새



본 협회 정병철 상근부회장이 시련과 격동의 반세기 현장에서 몸소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저자는 "하느님 앞에 서더라도 아니면 밤중에 염라대왕을 만나더라도 '나는 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며 "이런 원칙은 가정에도 국가에도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사람이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서 인간다워질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또한 그것은 더 나아가서 내가 비로소 인간다워질 수 있는 진정 인간다워지고 나의 존재 가치가 드높아 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 대체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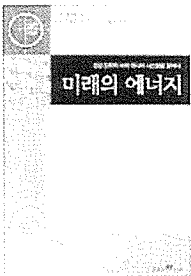
재생에너지의 에너지원별로 물리적 원리와 적용사례를 이해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저자가 연구소에서 재직 시 연구했던 기술자료, 1999년 이래도 매해 개설하여 학부에서 강의 하고 있는 '에너지 변환' 과목과 대학원의 '에너지 변환 및 발전공학' 등의 강의 자료, 미국 에너지성 산하의 국립재생에너지 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의 홈페이지, 이와 관련된 site 통하여 입수한 기술문서, 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자료를 기본으로 참고하여 정리해 수록했다.

## 미래의 에너지

그동안 출간된 다섯 권에 이어 이번에 시리즈의 마지막 권인 미래의 에너지가 출간됨으로써 '21세기를 위한 비전 시리즈'는 우리 출판계에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유례없는 총서라는 작은 사건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방점을 찍게 되었다.



굳이 새로운 세기로의 전환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세계는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구조에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에너지 부문에서 일고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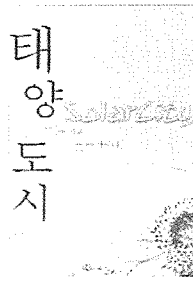
전통적으로 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대규모 에너지 공급과 소비 구조는 이제 더 이상 역사적 필연도, 시장이 낳은 황금알도 아니다. 미래의 에너지 구조는 지금 행해지는 정치적 선택의 결과이고 그 내용과 방향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빚어내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을 갖게 된다.

미래의 선택에 있어 현재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즉 생태계의 붕괴나 지속가능한 미래의 건설이나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지금의 에너지 체계를 계속 유지해나가면 머지않아 생태계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인류는 커다란 환경적 재앙과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원의 부족과 공급의 확보 방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 태양도시

지방 도시의 에너지 전환 문제에 대해 고찰한 환경서적. 이 책의 저자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솔라시티' 프로젝트를 취재하면서 도시의 에너지 전환 노력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독일 프라이부르크, 스웨덴 에테보리, 덴마크 칼룬보르, 스페인 바로셀로나, 일본 기타큐슈, 미국 새크라멘토 등 세계 각지의 태양도시와 전략과 그 효과를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한국 대도시의 에너지 및 환경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에너지 전환 노력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과정별로 담아냈다.



환경문제는 날로 악화되는 환경 그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모두의 위기이면서 나의 위기는 아닌 것'에 있다. 그런 우리의 문제를 드러낸 게 이 책이다.

환경문제를 에너지 문제로 좁히고, 에너지 문제는 결국 삶의 문제라는 명제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저자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은 몇평짜리아' 라고 자랑하기보다는 '우리 아파트 지붕 위에는 전기가 달려있어' 라고 자랑한다면 삶의 문화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며 "에너지 종류를 바꾸어 궁극적으로 삶이 달라지는 도시가 태양도시다"라고 설득한다.